10만 아시아팬 울린 김준수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제2833호 www.metroseoul.co.kr

홈런 4방 다저스 기사회생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한다

NEWS p/02

인천공항 승객 몰래 알몸검색

NEWS p/03

무한도전 가요제에 임진각 '들썩들썩'

p/17

메트로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제2833호 www.metroseoul.co.kr

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단속' 해양경찰청이 10월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11일 목포해경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28해리 EEZ 내측 2해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하는 중국 어선 1척을 뒤쫓고 있다 /연합뉴스

욕실에 남성 소변기 누구 생각?

불황 속 건설업계, '살림의 여왕' 주부들 실용적 아이디어 실제 아파트에 적용

주부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집안 정리'다.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살림살이가 곳곳에 많아 드러나면 어수선해 보인다. 하지만 주방 용품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주는 수납걸이부터 교자상 전용청소가수납장, 인출형 빨래건조대, 자전거 거치 신발장 등이 등장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전엔 그저 상상만으로 만족했던 수납 제품들이 주부들의 애견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눈썰미 좋고 깐깐한 주부들 머릿속에서 모두 나왔다. <관련기사 9면>

◆GS건설 등 주부자문단 운영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부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들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05년부터 주부자문단 '자이엘'을 만들어 상품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현재 자이엘에서 활동 중인 주부자문단은 모두 7명, 건축 전공자부터 광고업계 근무자, 컬러리스트까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들이 많다.

대학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한 주부 조영예(45)씨는 평소 아파트와 주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자이엘'에서 활

주부 ○○○(43)가 실제 GS건설 아파트에 적용된 '교자상 수납장(위)' '남자 소변기'

동하게 됐다고 한다. 조씨는 "모두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 주부들의 머리에서 나온 제안들"이라며 "주부들의 불만이 없었다면 탄생 못 했을 제품들이다"고 소개했다. 1남 1녀를 둔 주부 고영미(45)씨도 "주부들 입장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실제 아파트에 적용돼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이엘이 내놓은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교자상 수납 공간'이다. 아파트 거실이나 베란다 한쪽에 보관하기 마련인 크고 무거운 교자상은 주부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고씨는 "교자상은 손님맞이, 제사 때나 가끔 쓰는데 마땅히 둘 곳이 없다"면서 "주방 옆 자투리 공간에 교자상이나 빨래건조대, 병풍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자상 수납공간 등 대표적

이들의 아이디어는 안방 파우더룸에서도 빛을 발했다. 조씨는 "파우더룸 화장대에 보석함처럼 뚜껑을 위로 올려 여는 서랍장을 넣어 화장품이나 각종 보석 등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서랍장 뚜껑을 닫으면 화장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부표 아이디어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내 텃밭 공간, 지하주차장 쇼핑카트 설치, 아파트 관리비 절약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고씨는 "아파트 내 일부 공간에 텃밭을 마련했더니 주부들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매주 직거래 장터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장터를 통해 나온 임대 수익으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아이템도 냈다"고 소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중요해졌다"면서 "주부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김현철기자 news@metroseoul.co.kr

"김일병, 어머니 전화"

가족·친구와 통화 수신전화기 전부대 설치

국방부가 17일 군 복무 중인 아들이나 친구들의 안부가 궁금할 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할 수 있도록 전 부대에 수신전화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각 부대별로 육군 4905대, 해군·해병대 410대, 공군 945대, 국방부 직할 부대 392대로 총 6652대가 설치됐다.

수신 전화는 병사의 가족이나 친구가 일과 시간 이후 전화를 걸면 중대 행정반에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가 전화를 받아 해당 병사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상급 부대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중대급 부대로 확대해 각급 행정반에 설치를 마무리했다"며 "예산 확보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 내 전화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중전화 사업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병사들이 부대 내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올 때만 통화가 가능한 것을 개선해 가족이나 친구도 부대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했다. 병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대별 수신 전화번호는 해당 부대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이나 병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신준기자 mjk.mk

말 한마디 못한 증인들

기자 수첩
이재영
<경제산업부 기자>

올해 국정감사도 어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번 국감에서 문제가 되던 여야 간 입장 차로 인한 파행도 여전했고, 증인 신문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로 인해 6시간여 중단되다 결국 파행되며 출석한 증인들은 입을 열지도 못한 채 되돌아가는 상황도 생겼다.

같은 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 역시 재계 인사 19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문 하나씩을 받고는 금방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청하던 사람들도 "어 한마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바쁜 재계 인사들을 불러들였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질문을 해놓고 증인들의 답변을 자르며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증인들은 하고자 하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이날 국감 방청을 위해 참석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매번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형식적인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냐"면서 "국민이 원하는 국감이 무엇인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처럼 올해도 국감은 여전히 고질적인 정쟁의 장이라는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국감 시즌은 이제 시작이다. 남은 국감 기간 과연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국감이 왜 치러지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감준비 분주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밖에서 분주하게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두 석기' 놓고 종일 공방

여, 노무현정부 이석기 가석방 추궁 – 야 "용산참사 책임 김석기 사퇴"

17일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아 국회 법제사법위와 국토교통위에서는 석기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석에 앉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5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앞에 놓인 노트북에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사퇴'라고 쓰인 A4용지를 붙여 놓기도 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인사추천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부적격자"라며 "김 전 청장의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며 당장 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용산 사태는 과거의 일일 뿐이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김 전 청장의 사장 취임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역시 법무부 국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과거 사면 문제 등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지난 2003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 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지난 총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에 댓글을 달았다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폭로 이후 이들이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과 연계해 국정원 직원 댓글을 퍼나르는 일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유현준기자 mk m@metroseoul.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항의 뜻을 담아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사퇴'라고 쓰인 종이를 노트북에 붙인 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대형 안전사고 원인제공자 구속수사 원칙

검찰이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나 열차의 충돌사고와 같은 집단 안전사고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7일 최근 잇따라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 사범 엄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집단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부서(전담 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주요 원인 제공자는 구속 수사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활짝 웃는 한·필리핀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활짝 웃으며 사열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가리봉동·홍은동 등 서울 5곳 재개발구역 해제

●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가리봉동 일대 등 5곳에 지정된 재개발 구역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2092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홍은동 8-4000번지, 강동구 암사동 458번지, 강서구 등촌동 654번지, 강북구 미아동 776-68번지 등이다.

한수원 직원 원전비리 징계 6년간 무려 118회

●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2008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원전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횟수가 총 118회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3건,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65건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31건이다. 건별로는 금품수수와 향응(55건), 사고보고 은폐(5건) 등이다.

내년부터 대학정원 감축 나선다

교육의 질 등 평가해 3개그룹 분류 최하위 그룹은 퇴출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초월하는 2018학년도를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17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 연구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와 이를 근거로 한 구조개혁방안을 발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에 대해 절대 평가를 시행,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도록 했다.

상위 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 그룹에는 각종 정부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 그룹은 퇴출된다.

대학 정원은 상위 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위 그룹에는 정원 감축폭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한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리기자

전직 경찰은 조폭과 손잡고…목사는 신도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사기를 친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목사에 경찰 출신인 보험사 직원도 포함됐다.

청주지검은 17일 보험사기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A(43)씨와 조직폭력배 B(38)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조직폭력배 4명과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자동차 관련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다른 렌터카 업체의 보험사기를 조사하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 2명은 보험사기 조사를 무마시켜주는 조건으로 600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분당경찰서도 이날 성남의 한 교회 목사 C(5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사용하는 렌터카에 신도 3명을 태우고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5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모집병 내년부터 추첨

동반입대·직계가족·연고지복무병 등 선착순 선발서 방식 바꾸기로

현재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동반입대 등 모집병 선발 방식이 내년부터 추첨식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내년 1월 입영자부터 모집병과 현역병 선발 및 입영일자 결정 방법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반 입대, 직계가족 연고지 복무병 등 모집병 선발 방식은 올해 11월 지원해 내년 1월 입영하는 사람부터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식으로 바뀐다.

모집병 중 동반 입대·직계가족·연고지 복무병은 자격 면허·전공 등을 고려하지 않는 선호 복무 분야로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선발됐다.

현재 모집병 지원 접수 시스템은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바로 복학이 가능한 연초에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3분 내에 마감될 정도로 지원서 접수가 몰려 신청이 원활하지 못했다.

병무청은 2~3일간 접수 기간 동안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병역 의무자의 지원서를 받고 접수 마감과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 11월 지원해 선발된 사람은 신체검사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과 등에 따라 12월 중 최종 선발 여부가 확정되고 2014년도 1월 중 입영하게 된다.

또 징집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결정 방법도 입영 선호 시기인 2~5월 지원자는 선착순에서 추첨식으로 변경한다. 비교적 지원자가 덜 한 6~12월은 종전과 동일하게 선착순 선발한다.

2~5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올해 12월 11~22일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일자 3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추첨은 12월 23일 오후 2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유효정기자 arava100@metroseoul.co.kr

담뱃대를 리코더처럼 단이고로 알려진 한복계 (사)와 그의 가족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옥지원센터에서 종로구와 훌트아동복지회가 마련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 중 하나로 곤룡포·당의 등 한복을 입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숭례문 기와·현판글씨도 벌써 변색"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단청에 이어 1·2층 기와와 현판 글씨가 변색되는 등 복구 6개월 만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년(민주당) 의원은 17일 문화재청 숭례문 사무소 관리일지를 보니 1·2층 기와를 비롯해 현판 글씨의 변색이 진행 중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순각판각 졸목 사이사이를 막는 널빤지, 연직개판(서까래와 서까래 사이를 널빤지로 덮어 막는 것), 주내기루 양성(지붕마루 수직면에 바른 흙 등을 바른 것) 등에서도 변색이 진행됐다. 북측 좌측 육축(성문을 축조하기 위해 무사석 등 큰 돌로 축조한 성벽)은 백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성벽에서 녹물이 나오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숭례문 준공기념식은 지난 5월 4일이었는데 실제 준공 검사는 7월 중순이었다. 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참석한 기념식부터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순라기자

어깨춤이 절로! 학생들이 17일 서울 노원구 마들근린공원에서 열린 제22회 마들농요 발표 공연 겸 벼 베기 추수 체험 행사에 참가해 벼 베기 전 흥을 돋우는 길놀이를 하며 어깨춤을 추고 있다. /뉴시스

노량진청과물시장 폐쇄

34년 역사의 노량진청과물도매시장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노량진동 16-7번지 노량진청과물도매시장의 시장 기능을 폐지하기로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79년 준공한 노량진청과물도매시장은 1984년 가락시장이 문을 열고 1990년대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기능이 축소됐다.

2002년 6월 폐쇄 공고 후 현재는 창고로 활용되는 등 사실상 도매시장 기능은 상실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용도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숙희기자

"인천공항, 승객 4만명 몰래 알몸검색"

비행기 티켓에 암호 표시해 3년간 전신 스캔 '들통'

인천국제공항이 승객의 비행기 티켓에 몰래 암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위해 물품 탑승이 의심되는 승객의 전신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신 검색기는 일명 '알몸 검색기'로 불릴 정도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돼 미국에서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17일 "인천공항은 지난 3년간 4만 명에 가까운 승객의 몸을 전신 스캐너로 검색했고, 충격적인 것은 검색 대상 승객들의 티켓에 몰래 암호로 표기해 (검사를) 실시해왔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의 발권 시 티켓에 암호 표시를 하면 검색요원들이 무작별 검색을 시행했다. 수만 건의 검색을 실시했지만 위해 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신 검색을 당한 승객 대부분이 자신이 검색 대상이 된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 /김현정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한복의 놀라운 변신 제17회 한복의 날을 맞아 모델들이 17일 구 서울역사인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한복패션쇼에서 아름다운 한복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박테리아 온상' 병원

중소 규모일수록 더 많이 발견…감염관리 정부지원 늘려야

중소병원에서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내성 세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입원 정원 300~499명) 환자의 '혈액 외 검체(침, 가래)' 슈퍼박테리아 분리율(재원일 1000일당 분리율)이 더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분리율은 2.04건으로 상급종합병원(1.62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 5'로 불리는 5개 대학병원의 분리율이 1.32건인 데 반해 중소병원 가운데서도 신고 자료가 없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병원을 제외한 기관의 분리율은 3.55건으로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중소병원의 감염 관리 필요성이 높지만 100개 표본감시기관 중 14곳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또 입원 정원 200명 이상이면서 중환자실이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 중 표본감시기관이 아닌 156개 병원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 감염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슈퍼박테리아 분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0개 병상 이상의 병원도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예산 지원을 통해 감염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러니 '라면상무' 생기지!

항공기 승무원에 폭언·폭행 101건 중 1건만 처벌

국내 항공기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건이 최근 5년간 100건 넘게 발생했으나 처벌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은 지난 5년간 101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이 87건, 폭행이 14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폭행 1건에 대한 벌금형이 전부였다. 나머지 100건은 경찰이 훈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09년에 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21건, 올해 8월까지 1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갑을 문화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 현상은 승무원이 겪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폭언이나 소란 행위 승객에 대한 제재는 개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연 기자

오늘 강서은빛 한마음 대축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18일 KBS 스포츠월드 제1체육관에서 '강서은빛 한마음 대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지역 주민 1400명이 참석해 공굴리기, 비전 릴레이 경기 등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세대 간 화합을 꾀한다. 문의: (02)2600-6728

용산구 1박2일 다문화 캠프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파주로 '2013년 다문화가족 캠프'를 떠난다.

참가자는 영어마을 파주캠프,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방문해 모자 빌라 치즈 체험, 피자 만들기 등을 체험한다. 비용은 전액 구비 부담. 문의: (02)2199-7173

"잘가, 푸른바다거북"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인 부산아쿠아리움 관계자가 지난해 8월 구조돼 치료를 마친 멸종위기 푸른바다거북 '동백이'를 1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방류하고 있다. /뉴시스

'SAT문제유출' 학원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최근 불거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7일 "SAT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지역 어학원 1곳과 어학원 대표 주거지를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어학원은 검찰이 올해 초 SAT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어학원 12곳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 해당 어학원은 지난 3월 미국 SAT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로 수업을 진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이달 5일 국내에서 치러진 SAT 시험 문제로 동일하게 나와 해당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이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개를 엄격히 금지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시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을 통한 문제 감정을 거쳐 해당 학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대표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TS 측은 어학원이 자체 작성한 문제가 실제 시험문제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라 기자

청와대 앞 미신고집회 항소심선 무죄

법원이 청와대 앞 미신고 집회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참가자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이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지만 참가 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직접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3월 21일 청와대 부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자 미신고 집회로 간주해 체포했다. /김보라 기자

국제산업보건대회 준비 돌입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 개최를 위해 국내학술위원회 창립회의를 16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고 본격 대회 운영 준비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학술위원회는 노동·경영학계 등 32명이 모여 발표 세션 운영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2015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metro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metro
陸粉搶飛
韓星演唱會 近四成內地人

metro Peru

Perú busca exportar carne de cuy a Europa

페루 햄스터고기 유럽 수출 조원기

햄스터 고기가 식용으로 팔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페루 쿠이(cuy·햄스터) 고기진흥협회는 쿠이를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페루국립위생국과 협력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의 윌리엄 로사오 대표는 "이들 국가에서 요구하는 각종 위생 증명서와 보증서를 전달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곧 수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이고기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페루의 쿠이고기는 거족의 다양성과 우수한 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Italy

Prove di smart city
a Milano 15 Isole digitali

comune Milano fa un nuovo ... verso passo verso la smart city. Da oggi sono

밀라노 시내에 '디지털 섬' 15곳 조성

이탈리아 밀라노가 스마트 시티 변신에 나섰다. 최근 밀라노시는 녹색 스마트 시티로 변모하겠다는 목표하에 디지털 섬(Isole digitali) 구역 15곳을 만들었다. 디지털 섬 내에서는 전용 카드를 가지고 2인용 전기 자동차를 탈 수 있다. 23일(현지시간)까지는 테스트 기간으로 무료 사용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 이 디지털 섬에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 무료 와이파이 이용, 전자 기기 충전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대중교통 정보 검색, 시 당국의 공지 확인, 여행자들을 위한 검색 등이 가능하다. /정리=박가범 인턴기자

metro Russia

В Интернете можно купить друга за сто рублей

돈받고 데이트 이성친구 연결 웹사이트 인기

최근 러시아에서 이성 친구를 사고팔 수 있는 이색 사이트(buymytime.ru)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당신은 다른 이의 친구가 되어 줄 수도, 살 수도 있습니다'라는 배너와 함께 '마음에 드는 친구를 선택해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온다.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 이 사이트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이트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회원 가입 후 자신의 사진과 하고 싶은 데이트, 데이트 가격을 제시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가진 상대를 선택하면 된다.

메트로 페테르부르크는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해 파샤라는 남자친구를 선택하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파샤는 도시를 함께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하는 비용으로 13달러(약 1만3000원)를 제시해왔다.

파샤에게 어떻게 이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는지 묻자 그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재미 삼아 이 사이트에 등록하게 됐다"며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돈도 벌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심리학자 이리나 보가노바는 "돈으로 외로움을 살 수는 없다"며 "만남의 질이 의심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러시아 비즈니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친구의 선택과 만남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가 두드키나 기자·정리=이국명기자

빅뱅·소시 보려면 홍콩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 초대형 콘서트 메카 부상 – 관객 40%는 광동성·베이징 등 대륙주민

홍콩이 한류 공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빅뱅,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한류스타들이 매년 홍콩에서 초대형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 덕분이다.

아시아 월드엑스포 아레나(Asia World-Expo Arena)의 하윰안 대표는 "글로벌 팝스타 레이디 가가를 비롯해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이 홍콩에서 자주 공연을 한다"면서 "특히 한류 열풍으로 아시아 각국의 팬들이 홍콩으로 몰려와 홍콩이 아시아 최고의 국제 공연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공연 관객의 상당수는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공연 마니아들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 공연장을 찾은 관객 중 대륙 관객의 비중은 2006년 20%에서 2011년 30%로 증가했다. 올해는 대륙 관객이 전체 관객의 약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하 대표는 "홍콩~주장삼각주~마카오를 연결하는 다리와 튠먼공항터널이 완공되면 더 많은 공연이 열릴 것"이라면서 "대륙 관객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콩을 찾는 대륙 관객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렴한 입장권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다.

홍콩 여배우 정수원과 쉬즈안의 매니저 궈치화는 "유명 가수들이 대륙에서 콘서트를 열면 보통 입장료가 2000위안(약 35만원)을 넘는다"면서 "하지만 홍콩은 600위안을 넘는 경우가 없어 광둥성 같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베이징같이 먼 지역에서도 홍콩으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륙의 공연 환경이 열악해 가수들이 홍콩에서 자주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도 관객들이 홍콩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라며 "룩스타 궈푸청(곽부성)은 홍콩에서 20여 회 콘서트를 하는 동안 대륙에서는 단 한 번만 콘서트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입장권에 관한 제도가 정립돼 있지 않아 정식으로는 홍콩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각종 대리 구매와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녀시대 콘서트 등 일부 인기 공연 티켓은 원가의 2~3배가 넘는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서울 도심에서 30분, 섹시한 스피드로 색다르게 놀자! 웅진플레이도시

웅진플레이도시 woongjin PlayC

자동차 |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 지하철 | 7호선 삼산체육관역 1번출구 · 1577-5773 · www.playdoci.com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40.11 (+6.00)	521.52 (-4.18)	2.85 (-0.02)	1063.00 (-4.00)

뉴스&뉴스

초미니 사과 드세요 17일 서울 신세계 백화점 본점 청과매장에서 엘프스 오도제일기 미니 사과 를 판매하고 있다. 미니 사과 의 무게가 일반 사과의 1/10 수준으로 크기가 골프공만큼 작은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생산자물가 12개월째 하락

●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0.5% 하락한 이래 12개월 연속 내림세다. 생산자 물가가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이후 처음이다. 가장 하락폭이 큰 품목은 농림수산품(-8.0%)이었다. /김문희기자

채무상환률 빈익빈 부익부

●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소득 분위별 채무상환비율(DSR) 조사 결과,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의 DSR는 지난해 3월 27.8%에서 올해 3월 24.3%로 낮아졌다. 고소득층의 DSR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빚 갚을 여력이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DS는은 작년 3월 26.2%에서 올해 3월 29.3%로 늘어났다. /이국명기자

아파트값 7주째 상승행진

● 전국 아파트값이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오르며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름폭은 한 주 전(0.18%)보다 다소 작아졌다.

급매물이 소진된 뒤 호가가 오르고,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매수세가 진정된 영향이다. /김민지기자 mary@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혁
편 집 국 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8-7100
독 자 센 터 02)721-9715
2002년 5월 24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56

KT·포스코 '위기의 회장님'

공정위·검찰·국세청 압박 공세에 이석채·정준양 연내 퇴임설 확산

KT 이석채 회장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정치권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압박 등 잇단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이석채 회장과 정준양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끊임없는 퇴임설에 시달리고 있다. KT와 포스코 측은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라며 대표 퇴임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과 검찰, 정부기관 등의 유착암이 심상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KT가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 수주 과정에서 포스코ICT 쿳데정보통신 등 입찰 참가자들과 담합을 주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7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울러 전·현직 임직원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스마트몰 사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석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담합한 사실도 없으며,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한 일들도 이석채 회장 취임 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 취임 직후 KT 연대 복엄 조합이 들어가는 등 사업 철수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 역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함께 공정위의 집중 감사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선 이번 포스코의 특별 세무조사가 정준양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정준양 회장이 자진 사퇴하길 종용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최근 포스코의 동반성장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적발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 동반성장 우수 기업 지위를 박탈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이은 악재에 이석채 회장과 정준양 회장이 연내 나란히 퇴임할 것이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KT와 포스코의 차기 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절규하는 개미들 ... 변헌 사과한 현회장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인도에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왼쪽). 이날 오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 5개사 법정관리 '기사회생'

법원 결정에 "사태 장본인이 구조조정" 우려

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박철원·금기룡·손태구 등 기존 대표이사 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고, 김철·한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제외됐다. 동양시멘트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동양 경영자들이 부실과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배후, 대주주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금 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법정관리인이 되버렸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할 것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집회에 참여하려는 피해자 지원을 못하게 하는 지침을 동양증권에 내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이가영기자

거래량 많은 지역 매매가도 오름세

17일 부동산114가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과 매매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이 매매가도 상승했다. 9월 거래량은 4182건으로 전달 2785건에 비해 50.16% 늘고 매매가는 0.07% 상승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상위 5개 지역은 송파구(122건 증가), 노원구(118건), 강동·구로구(108건), 성북구(94건) 순이었다. 이 중에서 구로구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 매매가가 0.03~0.3% 올랐다.

반면 서초·관악구(+27건), 서대문구(+5건), 중구(-1건), 종로구(-25건) 등 거래량 증가폭이 적은 5개 지역은 모두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복권당첨금 701억 주인 어디에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에게 17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번달까지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은 로또(온라인복권) 618억원, 즉석복권 83억원 등 총 701억원이다.

연금복권의 경우 분할 지급 준비금과 미수령금이 구분되지 않아 전체 미수령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20년간 분할 지급될 1등 당첨금을 포함해 모두 369억 원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올해 소멸 시효 1년이 완성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당첨금은 2011년 241억원, 지난해 557억원이었다. /김은희기자 unique@

美 출구 앞 퇴색하는 '황금시대'

연준 유동성 회수하면 '강달러시대' 회귀 전망
위축된 금 투자 · 2001년 이후 첫 마이너스 수익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금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시중에 푼 유동성을 회수하면 그간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올 들어 금값은 24% 떨어졌다.

특히 금값이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데 시장은 주목한다.

금값은 2007년에만 31.8% 상승했고 그 외 대부분의 해에도 연 10~20%대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금값은 고공 행진을 멈추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온스당 1500달러 선이던 금값은 6월 120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다. 심리적 지지선이던 1300달러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금값은 8월 말에 반등하며 1400선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시 약세로 돌아서 12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금값 역시 120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값 하락의 여파로 금 투자자들도 크게 줄고 있다. 세계 최대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골드트러스트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1300t에서 올 10월 800t으로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는 한 금값이 반등하기 어렵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강유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요가 줄어 금값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금값이 1200~135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때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유경하 동부증권 연구원은 "금광업자들의 생산원가로 볼 때 온스당 1200달러가 중기 저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 회복을 감안하면 금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쉽지 않아 보이므로 금을 팔고 산업 재료로 널리 쓰이는 백금과 팔라듐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모간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더 떨어져 내년 평균 1313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금에서 손 떼기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아파트 짓는 주부들' 건설사들 모집 열기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매년 주부자문단을 모집한다. 30~50대 주부들이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위해 60대 주부와 중장년 남성 등 참가층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대체로 지난해 활동 내역이 우수한 회원은 연임되고 추가 신규 회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활동 회원들은 매달 주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 때로 모임마다 각종 브랜드의 모델하우스 및 단지 조사, 주거 공간 개선 아이디어 제안 및 분석 등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주제에 따라 사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주부자문단으로 활동하는 한 주부는 "지방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현장까지 가야 할 경우도 이따금 있다"며 "발품을 많이 팔아 브랜드별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는 게 관건"이라고 귀띔했다.

각 건설사별 모집 인원은 GS건설의 주부자문단 '자이엘(XiEL)'이 총 8명, SK건설의 '행복크리에이터'가 총 15명, 삼성물산의 '21세기주택위원회'가 총 10명이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주부자문단으로 선정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한 건설사 주부자문단 관계자는 "첨단 신규 아파트 문화와 트렌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워드·파워포인트 능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조유의 美 부도' 막아낸 주먹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16일(현지시간) 국가 디폴트 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 통과를 앞두고 회심에 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상·하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합의안을 전격 통과시켜 미국은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AP뉴시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휘파람

오바마정부 부채한도 협상 타결로 이틀째 연중최고점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2050선을 웃돌고서 204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연중 최고점을 새로 썼다. 외국인은 이날 35일 연속 순매수 행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빨라지게 하는 등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희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외국인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계속 순매수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내년 초 한국의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외환시장에서 갑자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번 타협은) 부채 한도 상한을 두지 않는 긴급 조치로서 내년 초까지만 유효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상원 여야 지도부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에 열엿새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이번 합의도 예산·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정기자 hjkim@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문' 합병

현대자동차그룹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 자동차 냉연사업 부문을 합병하면서 현대차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업 및 지배 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그룹에서 이뤄진 계열사 사업 재편이 3세 승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도 계열사 합병을 추진하며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를 두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면서 취약한 지배 구조를 개편,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승계하려는 취지가 녹아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세용기자

가을 캠핑엔 테트라팩 음료 배우 이종혁·준수 부자가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열린 테트라팩 코리아의 스마트 캠핑 이벤트에서 일교차가 큰 가을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건강과 영양을 전달하는 테트라팩 종이팩 음료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SDS '아시안 메이크상'

● 삼성SDS는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경영기업상(아시안 메이크상)'을 12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안 메이크상은 지식경영 분야 최고 권위 평가기관인 영국의 텔레오스(Teleos)사가 아시아 지역 최고 지식경영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삼성SDS는 지식경영 시스템 '아리샘 3.0'의 우수성 및 활발한 업무지식 공유, 연구회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재영기자

SKT 장기고객 VIP 행사

●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올해부터 매년 가을 10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인 'VIP WEEK'의 첫 행사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VIP WEEK의 주제는 고객이 직접 선택한다.

올해는 지난 상반기 VIP 콘서트 관람고객 대상 현장 서베이 등을 통해 'Golf&Lite'가 주제로 선정됐다. 주 연령층이 40대 이상인 장기가입 고객은 주로 레저/아웃도어, 행복·힐링 등의 키워드에 관심을 보였다. /김태균기자

해외 드라마 볼땐 '망고채널'

● 보고 싶은 해외 드라마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VOD 서비스가 등장했다. LG CNS(대표 김대훈)는 17일 국내 최초로 해외 드라마 전문 VOD 서비스인 '망고채널'을 출시했다.

LG CNS는 미국 워너브라더스·폭스, 영국 BBC 등 3개 해외 메이저 방송사 판권을 확보하고, 국내 VOD 서비스 중 가장 많은 1700여 편의 해외 드라마 VOD를 개인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PC는 홈페이지(www.mangochannel.com)를 통해,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망고채널'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iOS는 연내 서비스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뉴스 & 뉴스

"제 솜씨 어때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스테이크 하우스 빕스가 17일 강원 춘천시 '빕스 춘천점'에 마련한 어린이 영어 건강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외국인 강사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폰 "월 20곡 무료감상"

● 이마트폰 사용자는 매달 20곡의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음악 사이트 '소리바다'(www.soribada.com)는 17일 이마트와 손잡고 알뜰폰 판매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마트 알뜰폰을 구매하면 이마트 전용-소리바다 앱을 제공하며 매월 무료 20곡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에서 '이마트 인증' 로그인 방식으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원클릭 가입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폰은 기존 MVNO폰과 달리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3, LG G2, 베가 LTE A부터 3G폰 피쳐폰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다 /박성훈기자

테크플러스 내달 14일 개최

● 국내 최대의 지식콘서트인 '테크플러스 2013'이 다음달 14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다양한 분야 간 지식 교류와 융합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자는 취지로 열리는 지식콘서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크레이티브&테크놀로지 창의적 기술,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웨어러블 기술, 3D 프린팅 등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는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글로벌 연사의 강연과 시연이 펼쳐진다

올해 행사는 세계 최초로 '나노' 개념을 정립한 에릭 드렉슬러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된다 드렉슬러는 1981년 미국 국립과학원 저널에서 처음으로 나노의 개념을 제안했고 그가 쓴 '창조의 엔진'은 나노 기술에 관한 최초의 저술로 평가돼 13개 국어로 번역됐다 /김태균기자

'가벼운 영상' 즐기는 스마트폰족

KT경제경영연구소 '모바일 영상 시청행태' 조사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스낵처럼 가벼운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의 '모바일 기반 영상 시청 행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는 뉴스(15.5%), 예능 프로그램(15.4%), 드라마(14.1%), 스포츠(13%) 등 짤막한 영상이나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콘텐츠보다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목적으로 시청하는 특징을 지닌 것이다

업체들도 스마트폰 세대의 이 같은 영상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춰 짧고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영상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 미디어 곰TV는 지난 8월 타임뷰 모바일 서비스 '3분TV'를 선보였다 '3분TV'는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3분 미만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드라마 예능에서 최신 뮤직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스마트폰 세대에게 제격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6월 네이트 판 동영상 내에서 SBS 주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5분 내외로 보여주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청자들은 유무선을 통해 다양한 화제의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멜론은 음악 방송 공연 쇼케이스 인터뷰 등 음악 관련 영상 콘텐츠를 한데 모아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멜론TV'를 지난 2월 선보였다

한편 드라마 콘텐츠도 10~15분 분량의 'SNS 드라마(모바일 드라마)'가 잇따라 제작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첫 방송된 '방과 후 복불복'은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와 SK텔레콤이 모바일 세대를 겨냥해 제작한 드라마로 등교·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에 방송된 뒤 24시간 언제든 인터넷과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다 '러브인메모리' '기억해줘꿈주님' 등 역시 스마트폰 세대를 겨냥한 짧고 가벼운 형태의 드라마다

CJ E&M은 초고화질(UHD) 방송용 모바일 드라마 '20's 스무살'의 촬영을 14일부터 시작했다 아이돌 그룹 비스트 멤버 이기광, 신인 배우 이다인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곰TV 브랜드커뮤니케이션본부 박정민 본부장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짧은 이동 시간을 이용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한다"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트렌드와 재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낵형 콘텐츠는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혁기자 ljh403@metroseoul.co.kr

구두디자인 엄 "신기해요"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패션코드 2013(Fashion KODE 2013)'에서 한 관람객이 구두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유아더 디자이너(You Are The Designer)'를 이용해 직접 스케치한 구두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집보다 전세·월세 선호" 2배 늘어

자기 선호도가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5세 이상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미래 점유 형태로 자가를 선호하는 응답 가구의 비율은 전체 응답 가구의 77.3%로 지난 2010년 90.7%에 비해 감소했다 대신 임차를 선호하는 비율은 16.8%로 2010년 6.9%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김민지기자 minji@

애플 '저렴이 아이폰' 안통하네

보급형 5C 생산업체에 주문량 25% 축소 통보

혁신이 고갈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애플이 이젠 마케팅 능력도 의심받게 됐다 중국 등을 타깃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5C(사진)의 생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급형인 5S와 소비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개발도상국에 선보이면 대박을 낼 것이란 애플의 계산이 빗나간 셈이다

17일(한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페가트론과 혼하이정밀(상호명 폭스콘) 등 아이폰을 제조하는 협력업체 두 곳에 올해 4분기 아이폰5C의 주문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애플이 두 회사에 통보한 5C 주문량 감소 비율은 각각 20% 미만 '3분의 1'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에 따라 5C 생산 감소 비율은 약 25%로 추정된다 반면 애플은 본사에 5S의 주문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애플이 5C 생산량을 줄이고 5S 생산량을 늘리도록 요청한 것은 모델별 수요 예측이 어긋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사 보조금이 없는 경우 5C의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549달러(약 58만5000원)인데 이는 고급형인 5S와 차이가 100달러(약 10만7000원)밖에 나지 않아 저가 단말기를 원하는 고객들이나 신흥 시장에서 호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5S는 품귀 상태이며, 특히 5S 골드 모델은 미국 기준으로 주문이 11월까지 밀려있다 /박성훈기자 zen@

삼성 '갤S4' 美 스마트폰 평가서 1위

애플의 안방 미국에서 여전히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스마트폰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미국의 유명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의 미국 이동통신사별 스마트폰 평가를 보면 갤럭시S4는 총점 79~81점을 받아 버라이즌·AT&T·T모바일·스프린트 등 미국 4대 이동통신사의 제품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유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소비자연맹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로 객관적이고 영향력이 큰 제품 평가로 유명하다

반면 애플의 아이폰5S는 76~78점을 받아 4~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T모바일 제품 순위에서는 4위, 버라이즌·스프린트 순위에서는 5위, AT&T 순위에서는 6위에 올랐다

컨슈머리포트는 아이폰5S가 지문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카메라 성능을 높인 점 등을 높이 평가했으나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고 화면 크기가 작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아이폰5C는 75~77점으로 이동통신사별 5~8위를 기록했다 /박성훈기자

세계 첫 35mm 풀프레임 미러리스

소니코리아 카메라 신제품 '알파 A7' 시리즈 공개

소니코리아는 17일 세계 최초의 35㎜ 풀 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A7 시리즈를 공개했다.

2430만~3640만 화소의 35㎜ 풀 프레임 엑스모어 CMOS 센서를 장착해 해상도와 선명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즉 고급 DSLR의 성능을 휴대가 편한 미러리스 카메라에 구현한 셈이다.

그런데 소니코리아는 두 달 전인 지난 8월 6일 렌즈 일체형 풀프레임 카메라 'RX1R'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제품은 A7시리즈와 동일한 성능을 자랑하면서 콤팩트 카메라의 크기와 무게를 자랑한다.

소니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카메라 브랜드로 통하는 올림푸스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지난 14일 렌즈 교환이 자유로운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OM-D E-M1'을 공개했다.

새로운 이미지 센서와 화상 처리 엔진을 단제에 역대 올림푸스 카메라 가운데 화질이 가장 뛰어나다.

후지필름의 'X프로1', 캐논 70D 등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이상의 모델들 가격은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대 후반에 이른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능의 카메라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마트폰 대중화로 디지털 카메라의 위치가 좁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삼성의 갤럭시S4만 해도 1300만 화소의 고사양 카메라를 탑재해 어지간한 디카보다 나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카메라 브랜드들은 스마트폰보다 뛰어나면서 스마트폰처럼 휴대가 편한 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가격이 비싼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스마트폰 시장으로 만족할 수 없는 소수의 유저를 대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가격 방식으로 적정 수익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휴대가 편한 고성능 디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올바른 소비란 무엇일까. 적정 수준의 사양을 갖춘 제품이라면 렌즈를 추가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프로 사진작가는 "800만 화소 이상이면 질 좋은 사진을 찍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시중에서 50만~60만원대에 판매하는 미러리스면 충분하다"며 "가능하다면 기본 렌즈 외 성능이 좋은 렌즈를 추가해 같이 쓰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소니 코리아 홍보도우미들이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A7과 A7R, 하이엔드 카메라 RX10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이 디자인한 BMW '뉴4' 출시돼

BMW의 새로운 쿠페 자동차 '4시리즈'가 엄마(?)를 찾아 한국에 왔다. 한국인 강원규 BMW 디자이너는 이 제품을 직접 디자인했다.

BMW코리아는 17일 경기 파주에서 BMW 뉴 4시리즈를 출시했다. 이날 론칭 행사에 참여한 강원규 디자이너는 "뉴 4시리즈 쿠페는 역동적이고 날렵한 외관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3·5·7시리즈와 달리 짝수로 시작되는 4시리즈는 프리미엄 스포츠 쿠페를 뜻한다. BMW는 쿠페나 컨버터블에 짝수를 부여한다.

뉴 4시리즈는 기존 3시리즈 쿠페보다 전장과 휠베이스는 길어졌으나 높이는 낮아져 역동성은 두드러지게 했고 BMW 특유의 짧은 오버행, 긴 보닛, 물 흐르는 듯한 루프 라인을 조화시켰다.

가격은 뉴 420d 럭셔리 라인이 5530만원, 뉴 428i M 스포츠 패키지 6420만원이다. /이상훈기자 zen@

억대 연봉자 70% 수도권에

억대 연봉 직장인 열 명 중 일곱 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1554만 명 가운데 급여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은 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억대 연봉 직장인은 서울 18만 명, 경기 6만6000명, 인천 1만 명 등 수도권에만 전체의 68.8%인 25만6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은 울산(2만6000명), 부산(1만5000명), 경남(1만4000명), 경북(1만2000명), 대구(6600명) 등 전체의 20.1% 점유율을 보였다. /이국명기자 kmlee@

"이런 엘리베이터 처음이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케이블社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렌티큘러가 적용된 엘리베이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뉴스 & 뉴스

국민은행 계약직원 4200명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 국민은행의 계약직원 4200여 명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노사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국민은행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처우와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국명기자

네이버 미래창조펀드 출자

● 포털업체 네이버가 벤처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나선다.

네이버는 창업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출자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3월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첨단 분야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다. 출자 참여를 통해 조성된 펀드는 높은 위험성으로 외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이국명기자

전세살이 지친 우리부부 위한 '참 착한 집'

LH, 한강신도시 알짜 위치에 중소형 820가구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Ab-06블록에 총 82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아파트를 짓는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면적은 모두 74㎡형(A·B타입) 484가구, 84㎡형(A·B타입) 336가구 등 중소형 2개 주택형에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74㎡ A타입은 판상형이며 나머지 타입은 타워형으로 설계됐다.

Ab-06블록은 한강신도시 서쪽 구래동에 위치해 교통·편의시설 등 주거 환경이 뛰어나다. 교통편은 합정~홍대~신촌~서울역 노선의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운행한다.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서울 생활권으로 평가받는다.

오는 2018년에 김포도시철도(총 23.63㎞, 9개 역)가 개통되면 서울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개교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대형마트 등 문화시설, 편의시설도 가깝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당 평균 795만원대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중도금은 없다.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면 된다.

단지를 남동·남서향으로 배치해 일조권이 우수하다.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시스템도 적용됐다.

가구별로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해 조명·가스·난방 등을 손쉽게 조절하고 승강기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도 갖췄다.

쓰레기를 단지 내 투입구에 버리면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처리되는 자동 클린넷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밖에 편의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 무인 택배 시스템도 설치됐다. 부부 욕실 비상콜, 음식물 탈수기, 싱크용 절수기 등도 구비됐다.

LH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 일대에 있는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에 주택 분양센터를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다. 입주는 2015년 7월 예정이다.

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hangang.co.kr), LH 김포사업단(031-999-5765~7) /김현정기자 hklee@

웅장한 액션들 가을의 전설 쏜다

판타지 MMORPG '아스타' 공개 이어 '검은 사막' '도타2' 곧 출시

올가을 액션 대작 게임이 몰려든다.

상반기에 콘텐츠 수입과 개발, 시범 테스트를 거친 게임들이 가을 대목을 맞아 출격하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의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를 17일 시작했다. 다음은 23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7개 주제의 CBT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은사막 첫 CBT는 신청자 15만여 명 가운데 선발된 총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CBT는 40레벨까지 공개하여 워리어, 레인저, 자이언트, 소서러 등 4종의 캐릭터와 다양한 콘텐츠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특정 레벨을 달성한 회원에게는 경품과 2차 CBT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허진영 게임서비스본부장은 "제한된 인원이긴 하지만 검은사막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테스트라 기쁘면서도 매우 긴장된다"고 말했다.

넥슨은 25일 대전액션게임(AOS) '도타 2' 국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게임은 해외에서 동시 접속자 수 53만 명을 기록한 인기 콘텐츠로 e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도타 2 비공개 시범 서비스와 각종 공모전을 진행해왔다. 이번달 초부터는 지하철 광고에 '102513'이란 숫자를 게재해 정식 서비스 일정을 홍보했다. 넥슨은 도타2 국내 정식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모든 사용자에게 태극마크 문양이 새겨진 '태극의 보석' 아이템을 지급할 예정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MMORPG '아스타'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판타지 게임인 아스타는 몽환적인 그래픽과 아시아 전설 줄거리가 특징이다. 세계적인 작곡가 양방언이 게임 배경음악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정식 서비스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에 아기자기한 소품형 게임이 많았다면 가을엔 웅장한 분위기의 액션게임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윤회기자 unique@metroseoul.co.kr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검은사막, 도타2, 아스타

'타이니팡2' 카카오 게임하기 1위

1탄 이용자 데이터 자동 반영 블리츠모드 그대로 이어 즐겨

모바일게임 전문기업 컴투스의 퍼즐게임 '타이니팡2 for Kakao'가 출시 하루 만에 카카오 게임하기 1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선보인 신작은 구글 플레이 무료 게임에서도 인기 순위 상위권에 랭크됐다.

타이니팡2는 기존 '타이니팡'의 게임성을 바탕으로 스테이지 형식의 스토리 모드를 새롭게 적용했다.

같은 색의 버블을 3개 이상 맞춰 터뜨리는 기본 진행 방식에 동물 구하기, 항아리에 특정 버블 떨어뜨리기 등 스테이지별로 다양한 미션이 접목돼 있다.

타이니팡2 for Kakao에는 공략의 재미가 더해진 스토리 모드와 더불어 최대한 빨리 많은 버블을 터뜨려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기존 블리츠 모드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이미 '타이니팡'을 플레이했던 이용자가 동일한 카카오 아이디로 타이니팡2 for Kakao에 접속하면 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돼 블리츠 모드를 그대로 이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컴투스는 다음달 11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타이니팡2에서 ▲게임 실행하기 ▲스토리 모드로 친구 초대하기 ▲이벤트 공유하기 ▲스토리 모드 20스테이지 완료하기 등 이벤트 미션을 해결하면, 미션마다 게임 캐시인 별 5개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선물한다.

/박성훈기자 zen@

"가을 승부 맞춰라" 야구게임도 PS중

프로야구2K·프로야구 매니저 선수팩·포인트 내걸고 이벤트

두산 베어스가 준플레이오프에서 2패 뒤 3연승을 하는 '리버스 스윕'이 벌써 나오는 등 국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열기가 뜨겁다.

이에 넥슨은 온라인 야구게임 '프로야구2K'에서 플레이오프 승부 예측 이벤트를 연다. 이 행사는 한국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프로야구2K 홈페이지에서 열린다.

한국시리즈까지 매 경기 승리팀을 맞히는 유저에게는 10만 게임머니(KP)를 지급하고, 시리즈별 승리팀을 맞히는 유저 전원에게 KBO 레벨2 선수팩 10장 묶음을 제공한다.

또 플레이오프 기간 프로야구2K에서 페넌트레이스 4위 이상 달성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순위별로 최대 100만 KP와 KBO 선수팩 10장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26일까지 실시한다.

프로야구2K에서는 스포츠 전문 채널 SPOTV와 제휴를 맺고 홈페이지에서 프로야구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엔트리브소프트의 '프로야구 매니저'도 유사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승리팀을 맞히면 3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선택한 팀이 패할 경우 100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어서 해당 팀의 경기 내용을 적중해 맞히면 추가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자유여행족 '소쿠리패스' 클릭

핫한 패스전문 여행쇼핑몰 8개국 교통·명소 티켓 취급

여행 전문업체 소쿠리컴퍼니가 패스 전문 여행 쇼핑몰 소쿠리패스(www.socuripass.com)를 오픈했다.

소쿠리패스는 해외여행이 매년 증가하고 여행을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는 개별 자유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에서 자유 여행객들의 편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프랑스 파리·영국 런던·미국 뉴욕·터키 이스탄불 등 8개국 10개 지역의 교통 패스와 관광 명소 티켓 등 다양한 패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인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런던아이 등의 입장권과 파리 비지트, 오이스터 카드와 같은 교통 패스, 파리 뮤지엄 패스, 뉴욕 시티 패스와 같은 관광 패스를 국내에서 미리 구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매진 등으로 인해 현장 구매가 어려운 뮤지컬과 각종 쇼, 운동경기 티켓과 레스토랑의 예약도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컬러풀한 겨울' 입은 신민아 배우 신민아가 따뜻한 감성의 겨울 화보를 공개했다. 여성복 브랜드 '조이너스'의 모델로 활동 중인 신민아는 이번 화보를 통해 밝은 핑크부터 고혹적인 분위기의 블루까지 컬러풀한 코트로 다양한 패션을 제안했다. 조이너스 관계자는 "올겨울에는 무채색보다 화려하면서도 패턴이나 퍼(fur)로 장식된 코트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이너스 제공

소파, 쇼핑의 공식

결혼과 이사가 잦은 가을철, 가구를 고르는 손길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거실은 가족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고 아늑하게 꾸며야 한다.

홈 데커레이션 전문 브랜드 에스갤러리와 디자인 가구 에넥스가 우리 가족에게 맞는 소파 선택 노하우를 귀띔했다.

◆아늑하고 포근 - 패브릭 소파

패브릭 소파는 리넨, 니트, 면 등으로 만들어져 가죽 소재보다 아늑한 느낌을 주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층이 많이 찾는다.

거실이 좁은 경우에는 소파 전체를 세트로 구비하기보다는 소재와 색상이 다른 1인 소파를 함께 배치해야 좀 더 감각적이고 캐주얼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또한 과거 패브릭 소파는 오염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최근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커버링으로 세탁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구스다운 등 업그레이드된 충전재로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도 출시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에스갤러리의 바이경 대표는 "선선한 가을철에는 따뜻한 분위기의 패브릭 소파가 잘 어울리는데, 쿠션이나 소품을 수시로 교체해 주면 더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재·색상 다른 1인용 작은 거실에 개성 부여
가족 연령대 다양하면 가죽소재 세트 배치를

◆쓰면 쓸수록 멋진 가죽 소파

가족이 많고 넓은 평수의 거실인 경우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매치하기보다는 안정감 있으면서 통일감이 느껴지는 소파를 배치하는 게 좋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실용적이면서 클래식한 멋이 살아있는 가죽 소파를 추천한다. 천연 가죽 소재의 소파는 쓰면 쓸수록 멋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마른 수건으로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듯이 닦아주고 한 달에 한 번 가죽 전용 클리너로 관리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에넥스 관계자는 "과거 가죽소파하면 브라운, 블랙 등 어두운 컬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감각적인 디자인에 다양한 컬러를 접목한 가죽 소파들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며 "베이지, 화이트 등 밝은 색상의 가죽 소파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se@metroseoul.co.kr

가을 아웃도어족 눈이 번쩍!

스포츠선글라스 제로알에이치 플러스 컬러·기능 탁월

세계적인 사이클링 선수 알베르토 콘타도르(32)가 선택한 스포츠 선글라스, 제로알에이치플러스(zero rh+)가 올가을 매혹적인 컬러와 디자인에 테크놀로지까지 겸비한 라인업으로 아웃도어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브랜드 제로알에이치플러스는 다리 F&S의 차별화된 영업망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젊은층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의 시야를 보장해주는 포뮬라 'RH730'의 프레임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재로도 쓰이는 하이텍스 소재로 온도에 강하고 탄력성이 뛰어나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렌즈는 빛에 따라 자동으로 색을 바꾸며 깨끗한 시야를 확보해준다.

'RH730' 제품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최고의 소재·기능성의 결합으로 이상적인 스포츠 아이웨어로 꼽히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RH691'은 예술 제품에 가까운 스포츠 아이웨어로 스포츠를 즐길 때는 물론 일상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다리 F&S의 정수 사장은 "제로알에이치플러스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브랜드로 자신만의 컬러와 혁신적인 기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리 F&S는 스와로브스키 옵틱, 로즈 존 칼리아노, 지방시, 클로에 등 총 20여 개의 브랜드를 선보이며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진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2013년 가을 스포츠 아이웨어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문의 www.darikorea.com 02)513-2343 /박지원기자

신랑친구 '하객 패션'에 신부친구 반했군

입던 정장에 니트베스트 캐주얼 타이 코디하면 '굿'

본격적인 웨딩 시즌을 맞아 '하객 패션'으로 고민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패션 전문점 헤메이드는 "하객 옷차림이 어려운 이유는 결혼하는 신랑·신부가 빛날 수 있도록 예의와 격식은 갖추되 하객다운 화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정장 스타일링 노하우를 공개했다.

굳이 옷을 새로 사지 않아도 멋스러운 하객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평소 입던 가을 정장에 잘 어울리는 색상의 니트 베스트를 코디하면 한결 멋스럽다. 정장의 틀을 갖추되 캐주얼한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하객 패션 스타일의 포인트다.

슈트와 베스트의 매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진회색 슈트가 무난하다. 진회색은 대표적인 가을 색이라 할 수 있는 와인색·밤색 등과 잘 어울리고, 네이비·블랙 등 대부분의 기본 컬러에도 잘 맞는다.

넥타이는 다소 캐주얼한 디자인이 화사한 분위기를 내는 데 좋다. 깜찍한 보타이를 하거나 셔츠 안에 스카프를 받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클래식 슈트 브랜드 '브루노바피'의 양현석 디자인 실장은 "정장에 베스트나 타이·스카프 등을 적절히 매치해도 하객 패션으로 충분하다"며 "결혼식 등 특별한 행사에서는 조금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주말 야생가족 비닐 깔아야 '밤잠 힐링'

캠핑시 필요한 건강상식

가을 나들이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캠핑에서는 자칫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다. 즐거운 캠핑을 위해 캠핑 장비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만큼 캠핑 건강 상식도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야외 취침 전 스트레칭 필수

캠핑 후 피로가 쌓이는 이유는 불편한 잠자리 때문이다.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잘 경우 다음날 아침 온몸이 쑤시듯 아프거나 근육통, 요통 등을 경험한다. 딱딱한 바닥과 허리 사이의 뜬 공간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려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때문에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다. 특히 체온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바닥에 비닐을 깐 후 매트리스나 침낭 등을 이용하면 습기와 한기를 막을 수 있다.

◆벌레에 쏘였을 때는 냉찜질 먼저

야외에서는 특정 풀숲 만진 후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옻나무로 인한 발진을 들 수 있는데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면 우선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씻은 후 냉찜질을 해주면 가려움증과 발진이 사라진다. 또 벌에 쏘이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도 냉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준다.

◆자외선 대비한 선글라스는 필수

가을볕은 여름 햇빛만큼이나 신경 써야 한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각막 화상이라 할 수 있는 광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꽃가루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에 걸릴 수 있다. 만약 눈에 이물감이 심하고 가려움증, 충혈, 눈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눈을 비비거나 이물질을 손으로 빼내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야외 활동 시 눈에 충혈·가려움 증상이 나타나면 무방부제 인공 눈물은 차갑게 한 후 투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캠핑장비 '멀티플레이어 시대'

의자배낭·점퍼형 침낭 등 일석이조 제품 눈길

최근 캠핑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톡톡 튀는 이색 캠핑용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자로 변신하는 배낭부터 입고 바로 잘 수 있는 재킷겸침낭까지 기발한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은 제품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한다.

휴대용 접이식 의자는 캠퍼들의 필수품이다. 캠핑 전문 브랜드 오프로드는 의자와 배낭의 기능을 동시에 담은 '의자배낭'을 선보였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배낭이지만 등판에는 단단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이 달려 있어, 가방을 내려 프레임을 펴면 바로 의자로 변신한다. 캠핑장뿐 아니라 낚시터에서도 유용하다.

수면용 침낭이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는 두툼한 외투로 입을 수 있는 '점퍼형 침낭'도 눈길을 끈다.

'반고아웃도어의 '후드침낭'은 모자가 달린 배딩조끼 모양의 침낭으로 상황에 따라 손쉽게 변형되는 트랜스포머형 제품이라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날씨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두운 밤을 은은하게 비추는 랜턴은 캠핑의 분위기를 더한다. 콜맨의 '쿼드 LED 랜턴'은 1개의 랜턴이 4개로 분리되는 다목적 건전지 랜턴. 75시간 연속 점등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충전식 전지로 본체에 붙여놓으면 자동 충전돼 간편하다.

/차지형기자 jo@

롯데피트인 롯데몰 김포공항점에도 입점

동대문 패션 전문 면세숍인 롯데피트인은 15일 롯데몰 김포공항점에 숍인숍 형태로 개점했다고 17일 밝혔다.

476㎡ 규모의 이 매장에는 여성 캐주얼 브랜드 '제이케이(JEIKED)'와 '다이안렌터', 어린이 브랜드 '지지까까', 잡화 브랜드 '타이니박' 등이 들어선다. 특히 H&M·유니클로 등 글로벌 SPA 브랜드에 맞서 동대문 브랜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기원기자

명성산·대둔산 공짜 단풍여행 '손짓'

아웃도어업계 이벤트 푸짐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을 상대로 다양한 산행 이벤트를 벌인다.

고어코리아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다음달 17일까지 안전 산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어코리아는 등산 코스 앞에 부스를 차리고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 요령을 담은 책자, 비상용 호루라기, 쓰레기봉지 등을 준다. 안전산행 서약을 하면 추첨으로 배낭, 고어텍스 모자, 멀티스카프 등을 증정한다.

안전 산행 캠페인은 설악산, 지리산, 도봉산, 북한산에서 매주 토·일요일 진행된다. 도봉산과 북한산에서는 금요일에도 열린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단풍철 산행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이더의 가을 산행은 26일 명성산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과 다음달 2일 대둔산으로 떠나는 커플 여행, 다음달 9일 용봉산으로 떠나는 우정 여행 등 모두 3가지다.

참가 희망자는 20일까지 아이더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 지원하면 된다. 각 산행별로 25명씩 선정되며 22일 개별 공지된다.

/차지형기자

이웃 여고 소녀들은 왜 반응 없죠?

영화 '화이' 관객을 삼킨 아이 여진구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가 개봉 8일 만에 150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다. 톱 배우 김윤석과 10년 만에 복귀한 장준환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지만 영화를 접한 관객은 일제히 여진구의 연기에 한도닝이 극장을 나선다. 범죄 조직에 납치돼 길러진 화이(여진구)가 숨겨진 과거를 알고 복수하는 내용의 이 영화에서 그는 소년의 순수함부터 슬픔, 분노에 이르는 폭넓은 감정 표현은 물론 고난도 액션 연기까지 자유자재로 해냈다. 17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괴물을 삼킨 듯한 배우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나이답지 않게 성숙하고 깊은 감정과 눈물 연기를 잘 소화하는 비결은 뭔가

노하우는 없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시도는 해봤지만 어려웠다. 그래서 감정 연기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한다. 연기할 때 만큼은 여진구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큰 영화에서 타이틀롤을 맡은 용기가 대단하다

오디션을 보고 발탁이 됐는데 오디션 대본을 보는 순간 전체 이야기가 궁금했고 도전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다. 그런데 인물을 연구할 수록 더 어려웠다. 복수나 배신감만으로 다 표현되지 않는 인물이었다.

-복잡한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연기했나

굳이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 내리려 하거나 다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매 순간 화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 변화를 겪으려고 노력했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실질적인 첫 영화인데 벌써 올해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큰 도전인 만큼 잘해낸다면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 믿었다.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선배님들과 연기하며 몰입력, 상대 배우를 끌어가는 리더십 등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배웠다. 화이라는 인물을 성인 배우가 연기해도 괜찮았을 텐데 저를 믿고 써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

-상당히 강도 높은 액션을 소화해냈다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장면 같은 일부만 빼고 거의 대역 없이 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3개월간 액션스쿨을 다니며 격투를 배웠다. 수영,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은 워낙 좋아하고 액션도 즐긴다.

-범죄 조직에서 함께 생활하는 5명의 아빠들(김윤석, 장현성, 조진웅, 김성균, 박해준)과 현장에서 어떻게 지냈나

순수·분노·액션 등 '연기괴물'
엔딩 자막보다 긴~ 여운 선물
이상형은 엄마보다 어린 여자
롤모델은 이병헌·하정우 선배

모두 아빠라고 부르며 정말 부자지간처럼 지냈다. 선배와 어린 후배 관계였으면 기에 눌렸을텐데 늘 같이 장난쳐주고, 함께 운동도 하고 야구 중계도 보면서 즐겁게 지냈다. 특히 조진웅 선배님은 엄마처럼 다정다감하고 친구처럼 재미있게 대해줬다.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인기를 실감하나

길거리를 다녀도 다들 잘 못 알아본다.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더 모르겠다. 주위에 여고도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소녀팬들이 좀 와주길 바란다. (웃음)

-이상형은

잘 웃는 여자, 밝고 애교 많은 여자가 좋다. 중학생 때는 운동에 빠져 지냈고, 지금은 주위에 남자들밖에 없어서 아직 사랑 경험이 없다.

-누나 팬들의 애정이 대단한데 연상도 상관없나

상관없다. 부모님보다 어리다면.

-리틀 이병헌이라는 찬사가 나오고 있다

정말 감사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병헌 선배님의 몰입력과 하정우 선배님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닮고 싶다. 이번에 함께 연기한 우리 아빠들도 롤모델이다.

-tvN 시트콤 '감자별 2013QR3'에서는 영화와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준다

순발력을 키우고 싶었고, 생생한 연기를 배보고 싶었다. 처음으로 진짜 여진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디자인/박은지

star bag

조정치 영감받은 앨범 '가을여자'

가수 혜안이 17일 네 번째 미니앨범 '가을여자'로 돌아왔다.

3월 미니앨범 이후 7개월 만에 발매된 이번 앨범은 솔, 발라드, R&B 어쿠스틱 등 가을에 어울리는 장르로 구성됐다. 절친인 조정치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타이틀곡 '가을남자'를 비롯해 자작곡 다섯 곡이 수록됐다.

'SNL코리아' 출연해 화끈한 변신

배우 정경호가 19일 케이블 tvN 'SNL 코리아'에 출연해 토요일 밤을 화끈하게 달군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안상휘 CP는 17일 "최근 미팅을 통해 정경호가 단정하고 귀공자 같은 모습에서 나아가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각오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욕 배틀 콩트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출연 사실을 밝혔다.

올레스퀘어 '10월 아티스트' 팬미팅

가수 서인영이 팬들과 오쨘 만남에 나선다.

서인영은 올레스퀘어가 기획하는 '이달의 발견' 아티스트로 선정돼 ... 일 광화문에 위치한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10월 이달의 발견 서인영'이라는 타이틀로 팬미팅을 연다. 신데렐라, '베이지자', '나를 사랑해줘' 등 히트곡을 부르고 팬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첫 베스트 앨범 15곡 수록 日 발매

가수 루시드폴의 첫 베스트 앨범 '루시드폴 ... 베스트 모브'가 17일 일본에서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그대 ... 품이 보일 때면', '보이나요' 등 2001년 발표한 정규 1집 '루시드폴'부터 정규 5집 '아름다운 날들'까지 루시드폴의 앨범 수록곡 중 일본적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음악 15곡이 수록됐다.

2PM 日 오리콘차트 정상

'윈터 게임즈' 판매량도 1위

2PM이 일본의 가을 음악 시장을 점령했다.

이들은 16일 현지에서 발표한 일곱 번째 싱글 '윈터 게임즈'로 오리콘 싱글 일간차트 정상에 올랐다. 하루에만 6만4696장이 팔렸다. 일본 최고 인기 걸그룹 AKB48 출신의 카시와기 유키의 새 싱글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3만3154장으로 1위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2PM의 주간차트 정상 등극도 가능할 전망이다.

2PM은 이번 싱글 발매를 앞두고 전철·음반매장·도심 전광판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쳤다. 도쿄 시부야의 타워레코드에는 2PM 음반을 위한 전용 계산대까지 등장했다.

'윈터 게임즈'는 트렌치코트 차림의 여섯 남자가 전하는 쓸쓸한 사랑 노래다. /유순호기자

임진각 메운 인파 가을밤 '들었다 놨다'

무한도전 가요제 구름관중 · 26일 방송후 음원공개

MBC '무한도전' 팀이 네 번째 가요제를 열어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재석-유희열(하우두유둘), 박명수-프라이머리(거머리), 정준하-김C(더블플레이), 정형돈-지드래곤(형용돈죵), 하하-장기하와얼굴들(세븐티핑거스), 노홍철-장미여관(장미하관), 길-보아(갑)가 팀을 이뤄 참가한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가 1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가요제 장소가 이날 오전에야 뒤늦게 공개됐지만 평화누리공원에는 수만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 '무한도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 자리에서 유재석의 R&B, 노홍철의 밴드 음악 등 멤버들이 다양한 장르로 무대를 꾸며 임진각 일대를 뜨겁게 달궜다.

'무한도전'은 2007년 강변북로 가요제를 시작으로 가요제를 2년마다 열고 있다. 가요제가 방송될 때마다 해당 음원이 각종 음악차트를 휩쓸었기에 이번에도 가요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음원은 26일 방송 직후 유료로 공개되며, 음원 수익금은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멤버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음원 성적을 예상하기도 했다. 앞서 박명수와 지드래곤의 '바람났어', 박명수와 제시카의 '냉면', 유재석과 이적의 '말하는대로' 등이 크게 히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명수와 정형돈은 각각 "3연패를 달성하겠다" "지드래곤빨로 1위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유재석도 "R&B인데 계절적 요인으로 의외의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다. 조심스럽게 1위를 노려본다"고 말했다.

개그맨들이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에 편승해 가수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일부 가요계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유재석이 "힘들게 음악하시는 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 끼친 부분은 죄송하다. 다만 노래를 사랑한다는 진심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는 '무한도전'이 방송된 이래 처음으로 열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유재석은 "지난 8년간 '무한도전'을 하며 많은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았다. 비판을 받고 기가 죽으면 다음 회를 준비할 수 없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비판과 칭찬에 감사하며 매회를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은진기자 [illegible]

17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장항동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 기자간담회에서 길 정준하 하하 유재석 박명수 노홍철 정형돈(왼쪽부터) 등 출연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순위	영화	예매율
2	롤러코스터	12.21%
3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9.02%
4	소원	8.24%
5	깡철이	8.1%

아시아 팬 10만 울린 김준수

日 요코하마서 마지막 무대 100일 콘서트 투어 마무리

JYJ의 김준수가 100일간의 아시아투어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김준수는 1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1만1000명의 관객을 모아놓고 마지막 무대를 열었다. 솔로 1·2집 수록곡을 중심으로 댄스와 감성 발라드로 구성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현지 팬들을 위해 '안니소라노시타' '조보미' 등 일본어 곡도 선사했다.

공연 관계자는 "지난해 아시아투어에 이어 김준수의 공연은 또 다시 진화했다. 10곡이 넘는 댄스곡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완벽한 라이브로 소화했고, 10곡의 발라드 무대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감동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김준수는 7월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중국 상하이, 서울과 부산, 호주 시드니, 일본 나고야와 요코하마에서 차례대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총 7개 도시에서 10만 명의 팬과 만났다.

김준수는 "팬 여러분에게 같이 감동받았고 감사하다. 내가 음악을 하는 원동력은 나의 무대를 응원하는 팬들이다. 매순간 나에게 큰 힘을 주고 더 좋은 음악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준다. 팬들은 각 도시마다 나를 위해 이벤트를 만들어줬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광경이었다"며 아시아투어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음반 활동을 마친 김준수는 뮤지컬 '디셈버' 연습에 돌입한다. /유순호기자

'헝거게임' 디바의 응원가

아길레라의 '…캣칭파이어' OST 공개되자마자 음원 사이트 정상

팝의 디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아카데미의 여왕 제니퍼 로렌스가 만났다.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다음달 21일 개봉)가 16일 아길레라가 참여한 OST를 공개해 국내외 팝과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 50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고 다섯 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한 아길레라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롤링스톤 매거진이 선정한 '역사상 위대한 가수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아길레라의 힘 넘치는 목소리가 돋보이는 OST '위 리메인'은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각종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더욱 용감해져 돌아온 여전사 로렌스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헝거게임' 속편인 '…캣칭 파이어'는 헝거게임 승리로 혁명의 상징이 된 캣니스(제니퍼 로렌스)를 없애기 위해 독재국가 판엠이 음모를 꾸미고, 역대 우승자들을 모은 헝거게임이 개최되면서 캣니스가 절대 권력에 맞서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는 과정을 담았다.

전편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로렌스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톱 여배우로 우뚝 섰다.

'…캣칭 파이어'에서는 더욱 강력한 액션과 섹시한 매력, 물오른 연기력까지 보여줄 예정이라 영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위 리메인'은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해외 영화 OST 차트 정상에 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다.

/장소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제니퍼 로렌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스크린X, 스크린 뛰어넘었다"

WSJ 등 외신 극찬 릴레이

CGV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멀티프로젝션 특별관 '스크린X'에 외신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메인 스크린을 넘어 양쪽 벽면까지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스크린X의 첫 작품 '더 X'가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후, 이를 관람한 주요 외신들이 스크린X를 영화관의 진화 혹은 미래로 언급하는 호평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스크린X에 대해 "압도적인 경험"이라고 표현하며 "기존 3D 영화와 와이드 스크린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한 형태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평했다.

미국 시사 잡지 더 아틀랜틱은 "영화관의 미래"로 언급하며 "시각적 감각은 물론 공간·거리적 감각까지 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영화가 스크린을 뛰어넘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CGV의 넥스트-CGV 총괄 연구원 담당은 "스크린X는 올해 안에 국내 50개 특별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진원기자 tyio@

스크린X로 상영되는 '더 X'의 한 장면

'7번방' '설국열차' 대종상 경쟁

본선 진출작 21편 발표

올해 최고 흥행작 '7번방의 선물'과 글로벌 프로젝트 '설국열차' 등 21편의 영화가 대종상 작품상을 놓고 경쟁한다.

제50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7일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작품상 후보에는 두 작품 외에 '관상'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신세계' '감시자들' '늑대소년' 등 히트작을 비롯해 첫 '힘내세요 병헌씨' 등 독립영화도 포함됐다. 본선에 진출한 작품들은 18~25일 본심을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다음달 1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올해 대종상에서는 작품상 외에 감독상·남우주연상·여우주연상·시나리오상 등 총 19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유순호기자

올해 대종상 공식 홍보대사인 배우 조민수가 17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Mr. Grey. 약속 잡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그레이 씨를 만날 약속을 잡고 싶어요.
저는 목요일만 빼고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4시 대신에 2시는 어떠세요?
다음주 목요일에 쇼핑 가기로 약속을 잡죠.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Mr. Grey
I can come any day except Thursday
Please fill in this application form
How about two o'clock instead of four?
Let's make a date to go shopping next Thursday

반복 훈련으로 자동 말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밑줄 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Can we meet at 4 today?
B 2시는 어떠세요? instead of 4?

정답 How about 2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d like to make / I have an appointment to see Mr Cooper
2 Let's make a date / make plans to go shopping next Thursday

be동사 과거시제 부정문

▶ was, were 뒤에 not을 쓰며 '~이 아니었다'를 의미한다.

주어	동사	
I	was	not ~
you/we/they	were	
he/she/it	was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wasn't busy 저는 안 바빴어요.
2 He wasn't in New York 그는 뉴욕에 없었어요.
3 The traffic wasn't very heavy 교통량은 아주 많지 않았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Ms. Jung has suggested that ______ Mr Tesler or Ms. Sato attend the conference next month.
(A) both (B) neither
(C) as (D) either

02 ______ two thousand people attended the concert, and the theater was at full capacity.
(A) While (B) Over
(C) For (D) Upwards

01 정 씨는 테슬러 씨나 사토 씨 중 한 명이 다음 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설 빈칸 뒤의 or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 상관접속사인 (D) either를 써야 한다. either A or B는 'A 또는 B 중 하나'라는 뜻이다.
어휘 attend 참석하다 conference 회의, 회담
정답 (D) either

02 이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콘서트에 참석하여 극장은 자리가 다 찼다.
해설 빈칸 뒤에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두 개의 절이 나오므로 빈칸에 접속사는 올 수 없고, 뒤에 있어서 '이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전치사인 (B) Over를 써야 한다.
어휘 capacity 수용력
정답 (B) Over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5. 해결책 제시하기

첫인사로 답변 시작하기

전화 메시지를 들은 후 주어지는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 어떤 해결책을 말할지 구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시작되면 첫인사와 함께 바로 답변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 준비 시간에 화면에 뜨는 'Respond as if you are...' 문장을 참고하여 답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Hi, Mr. Chang. I'm calling you back regarding the boxes in the hallway
안녕하세요 Chang씨. 복도에 있는 상자에 관해 회신 전화 드립니다.

Hello, Mr. Chang. This is Richard Brown, the manager of the building.
안녕하세요 Chang씨. 저는 건물 관리인 Richard Brown입니다.

Hello, Mr. Chang. This is Richard Brown **in** the building service department.
안녕하세요 Chang씨. 저는 건물 관리부의 Richard Brown입니다.

Hello, Mr. Chang. This is Richard Brown **returning your call**.
안녕하세요, Chang씨. 저는 Richard Brown이고, 회신 전화 드립니다.

Hi. This message is for Mr. Chang. **I'm returning your call about** the boxes in the hallway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3		4		8		
4								
8		6			9			2
		5	1				9	
				7				
	7				4	2		
2			7			3		9
								4
		9		2		7	1	

		6						
			9					4
		4	8		3	6	7	2
2	1			5				
		3				5		
				2			6	8
3	5	8	7		2	1		
1					4			
						3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핫뉴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아이클 리오스 자료)

두 번의 재해석

권기봉의 도시산책 〈53〉

서울 남산을 걷다 보면 산보를 나온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한껏 산뜻해진 국립극장 주변도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애당초 국립극장은 서울시청 맞은편, 지금의 서울시의회 청사 건물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부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섰고 1950년부터 국립극장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국립극장 지위를 대구문화극장에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3년… 전쟁은 멈췄지만 국립극장은 부민관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부민관에 국회가 입주하면서 '시공관'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 현재 명동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명동예술극장이 그것이다.

남산 국립극장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박정희 정권 들어서였다. 자신의 민주국군 장교 전력을 가리기 위해 '민족전통문화'를 강조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족문화센터와 국악인양성소 건립 계획이 다 온 것이다. 지금의 남산 국립극장의 모태들이다.

설계를 맡은 이는 이희태란 인물이었다. 대학을 나오지 않는 등 그 시대의 다른 건축가들에 비하면 배경이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건물 디자인은 신선하면서도 전통 건축을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한 외관에 대한 지적과 대형 공연이 가능하게끔 내부 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결국 완공 30년 만인 지난 2003년 리노베이션 사업이 시작됐다. 이때 설계를 맡은 것은 고 이희태 선생이 설립한 설계사무소였다. 선학이 짓고 후학이 가꾸게 된 셈인데, 이희태 선생이 경회루를 재해석해 국립극장을 지었다면 후학들은 그 국립극장을 다시 재해석해 보다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개관 40주년을 맞은 요즘 남산의 단풍도 좋지만 남산 국립극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 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로스쿨 다니는 동생 유학계획 법의학 공부 자분히 도전해야

오늘도행복, 93년 4월 14일 음력 낮 12시

Q 동생이 로스쿨을 다니는데 검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법의학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동생 사주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A 상담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남녀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 구별이 안 돼서 점을 쳐보고 말씀드립니다. 2014년 운이 태동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시험은 2017년 합격운이 있습니다. 형살이 있어 법의학 쪽으로 진로를 설정한 것은 좋지만 2015년 포기할 운이 있으니 자분히 계획하십시오. 대들보처럼 그릇이 크고 사상이 건전하며 자립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일지에 녹(祿)을 지고 있으므로 성격이 착하고 복록이 따릅니다. 정록(正祿)으로 주관이 확고하고 침착할 것입니다. 생일지에 자살(自殺)이 있어 가족에 대한 애착심은 강하지만 안주해지 못해 공부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름 때문에 역마살 있다는데 한번 개명하면 자꾸 바꾸게돼

궁금 남자 86년 1월 9일 낮 12시

Q 며칠 전 사주를 봤는데 이름 때문에 늘 외롭고 역마살이 껴있으며 화가 많고 노년에 고생을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타고 기관이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 개명해야 될까요?

A 고난 겪어 있는 이름으로 불황이 닥쳐올 때 다져 남지 못한 채 지내는 흐름으로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노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의지를 갖고 한 우물을 파십시오. 그 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이 좋다면 금상첨화이나 사주의 원 그릇이 중요한 것이며 이름으로 인해 운세가 감하게 바뀐다는 감은 을씨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의지하려는 의타심으로 변화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마살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과거와 달리 역마살 없는 사람이 덜 되고 해야 할 세상이니 걱정 마십시오. 또한 지금 개명한다 하더라도 2017년이 지나면 또다시 개명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8일 음 9월 1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즐겁다. 60년생 프라이버시 보호에 신경 써라. 72년생 본 것 보지만 쓸 만한 것도 건진다. 84년생 연인과의 주말 계획에 설렌다.

소: 49년생 되돌은 가능한 한 삼가라. 61년생 이익이 많은 제안은 의심해야 한다. 73년생 가정의 달콤함에 젖어 출근하기 싫구나. 85년생 뜻 이루려면 오기 필요.

호랑이: 50년생 이익에 집착하면 잃는 게 많다. 62년생 어떤 상대든 한결같이 대하라. 74년생 모임에 가면 불편한 것 목격한다. 86년생 정보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토끼: 51년생 식사 조대는 지리를 봐가며 응하라. 63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도 좋다. 75년생 자신이 없으면 앞장서지 마라. 87년생 연인 때문에 고단하구나.

용: 52년생 공돈이 생겨 즐겁다. 64년생 귀중품 간수에 신경 써야 하는 하루. 76년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얻는 게 많다. 88년생 우유부단한 자세는 취하지 마라.

뱀: 53년생 감정 기복 심하니 유념하라. 65년생 지나치게 좋은 조건은 속임수다. 77년생 조작이 호기사 되는 데 주저하지 마라. 89년생 혼란스러운 마음 안정된다.

말: 42년생 소일거리 생겨 하루가 짧다. 54년생 힘든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겨라. 66년생 입장이니 거취 표명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78년생 희소식 문밖에 남도.

양: 43년생 고가품 구입 재고하라. 55년생 담담하다고 움직이면 손해다. 67년생 자녀에게 희소식 생기니 기대하라. 79년생 소감에 객기 부리면 지출만 늘어난다.

원숭이: 44년생 욕심내면 고민만 늘어난다. 56년생 어려운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마라. 68년생 꼭 필요한 물건을 얻어 기쁘다. 80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로구나.

닭: 45년생 모임에 가면 뜻밖 횡재할 일 생길 수도. 57년생 움직일수록 여유이 많다. 69년생 뒤는 행동은 후회를 부른다. 81년생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다려봐라.

개: 46년생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 58년생 돈에 눈멀어 위험 감수하지 마라. 70년생 남쪽으로 가면 경사가 있다. 82년생 수입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구나.

돼지: 47년생 이웃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칭찬. 59년생 생각이 많으면 판단 흐려진다. 71년생 기회는 또 있으니 낙심하지 마라. 83년생 연인이 기다리던 대답 한다.

'리즈 짠물피칭' 플레이오프 승부 원점

8이닝 1피안타·10K 무실점 역투 두산 정수빈·김현수 5삼진 굴욕

LG 트윈스가 외국인 투수 레다메스 리즈(도미니카공화국)의 호투에 힘입어 플레이오프 첫 승을 수확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은 1승1패가 됐다.

LG는 1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5전3승제) 2차전에서 2회말 윤요섭의 희생플라이와 박용택의 2루타로 얻은 두 점을 끝까지 지켜 두산 베어스를 2-0으로 제압했다.

2011년부터 LG 유니폼을 입고 한국 무대에서 세 시즌을 보낸 리즈는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1피안타 2볼넷 10탈삼진의 무실점 역투로 승리를 이끌었다.

두산은 9회 등판한 LG 마무리 봉중근에게도 삼자범퇴로 물러났다.

두 팀은 하루 쉬고 19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두산의 홈 경기로 3차전을 치른다.

전날 1차전에서 LG는 정규리그를 마치고 11일 만에 공식 경기를 치른 탓인지 4안타로 방망이가 침묵하고 실책도 잇따르며 쓴잔을 들었다.

플레이오프 2차전 17일

■잠실

두산	000	000	000	0
LG	020	000	00X	2

승=리즈(1승) 세=봉중근(1세이브) 패=이재우(1패)

이날도 수차례 찬스를 잡고도 좀처럼 터지지 않아 두 점 차밖에 앞서지 못했지만 리즈가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켜준 덕에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승리를 챙겼다.

리즈는 1회초 두산의 '테이블 세터' 이종욱과 정수빈을 연속 삼진을 잡으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후에도 리즈는 2회초 이원석에게 볼넷을 내줬을 뿐 4회까지 노히트 게임을 이어가는 등 두산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1회부터 시속 159㎞가 찍힌 리즈의 빠른 볼은 7회 첫 타자 김현수를 상대할 때 160㎞를 기록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2번 정수빈이 세 타석 연속 삼진으로 돌아서고, 3번 김현수도 두 차례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LG 트윈스 선발 투수 리즈가 8회초 두산을 상대로 역투하고 있다. 리즈는 단 1안타만 허용하는 완봉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연합뉴스

1회 1사 1·2루에서 점수를 내지 못한 LG는 2회말 이병규(7번), 오지환의 연속 볼넷에 이은 손주인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의 득점 기회를 다시 잡았다. 그러자 윤요섭이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 이병규를 홈으로 불러들여 선취점을 올렸다.

계속된 2사 3루에서는 박용택이 좌측 펜스를 원바운드로 맞히는 2루타를 날려 추가 득점했다. 박용택의 한 방에 두산 선발 이재우는 2회도 채우지 못한 채 강판당했다.

/박상준기자 zest@metroseoul.co.kr

이천수의 '새빨간 거짓말'

"시비 현장 아내도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사실 아냐

이천수(32·인천 유나이티드·사진)가 폭행에 이어 거짓 해명으로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다.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천수는 16일 불구속 입건됐다. 폭행 여부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사건 직후 구단에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천수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새벽 인천의 한 술집에서 이천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모(29)씨는 경찰에서 "이천수가 손으로 테이블 위의 빈 술병 20개를 쓸었고, 이천수로부터 얼굴을 2대 맞았다. 휴대전화 액정도 이천수가 집어 던져 파손됐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이천수는 구단에 "폭행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던지지도 않았다. 옆에 와이프도 있는데 폭행을 했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4시간 동안 이천수를 조사한 결과 술자리에 이천수의 아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단 측은 사태 수습이 끝난 뒤 이천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윤석민, 미네소타서 관심"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가 자유계약선수(FA)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윤석민(27)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의 라디오 진행자 대런 울프슨은 17일 트위터에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미네소타는 조만간 윤석민이 직접 던지는 것을 보고 계약 여부를 저울질할 예정이다. 미네소타는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윤석민과 바로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커쇼 이기면 류현진이 끝낸다

'3패' 다저스 벼랑 탈출 류, 최종전 갈 경우 선발

'영웅' 류현진(26·LA 다저스)을 위한 시나리오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3패를 당하며 벼랑 끝 위기에 몰린 다저스가 17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5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에 6-4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2승3패로 따라붙은 다저스는 19일 6차전에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를 내세워 승리를 따내고 20일 7차전에 류현진을 보내 월드시리즈행 티켓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이겠다는 각오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5차전 후 기자회견에서 연신 미소를 지으며 월드시리즈 진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미국 대표팀이 된 것 같다.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7차전을 보고 싶어 우리를 응원하지 않겠느냐"며 "세인트루이스 팬들도 7차전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격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클레이턴 커쇼를 믿는다"고 6차전 승리를 자신했다.

이로써 7차전 선발로 확정된 류현진이 또 한 번 다저스의 운명을 짊어질 확률이 커졌다. 류현진이 7차전에서 또 한 번 승리를 따낸 경우 시리즈 MVP 등극도 가능하다.

"다저스, 안 끝났어" 17일 LA 다저스의 한 여성 팬이 미국 야구의 전설 요기 베라의 명언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를 패러디해 '끝나지 않았어(It's not over)'라고 적은 팻말을 든 채 열렬히 다저스를 응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류현진은 5차전 직후 "오늘 지면 끝나기 때문에 경기 내내 마음을 졸이며 봤다. 7차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준비를 잘하겠다"며 "아직 긴장되지 않는다"고 강심장의 면모를 드러냈다.

류현진은 팀이 6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다시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 애덤 웨인라이트와 7차전에서 맞붙는다. /유순호기자

제이버드
블루투스의
기준을
다시 쓰다
스포츠 전용
프리미엄 블루투스 이어폰
Jaybird BLUEBUDS X

jaybird

Lots

전국 랏츠샵 매장 및 랏츠몰(www.lotsshop.com)
유명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